

TV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EBS 1

Table with 4 columns showing EBS 1 program schedules for different time slots.

EBS플러스1

Table with 2 columns showing EBS Plus 1 program schedules.

EBS플러스2

Table with 2 columns showing EBS Plus 2 program schedul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6일(음 10월 5일 丙申)

Table with 2 columns: 운세 (Fortune) and 해운의 숫자 (Lucky Numbers). Rows correspond to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조혜련, '중국어 선생님' 제2의 인생 시작

“삶의 배터리 다 될 때까지 도전”

조혜련(45·사진)은 기운이 넘쳤다. 그는 차디찬 늦가을 바람과 행인들의 즐거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카메라 앞에서 온갖 자세를 취했다.

조혜련은 연예인으로 살아온 지난 23년간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에너지를 불태워왔다. 그만큼 그를 장식하는 단어도 태보, 골름, 아나카나, 불어뻑 등 셀 수 없다.

의욕이 지나치다 보니 일본 활동 중 경솔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포털사이트에서 '조혜련'을 검색하면 여전히 '망언'이 연관어로 뜬다.

요즘 TV에서 그 특유의 껄껄대는 웃음이 보이지 않는다 싶었는데, 조혜련이 에너지를 쏟는 대상은 따로 있었다.

조혜련은 최근 중국어 인터넷 강의 사이트 개설 소식을 언론에 알렸다. 배태랑 중국어 강사인 여동생과 꼬박 10개월을 매달려 완성한 공간이다. "중국어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라면서 환하게 웃었다.

"요즘 제 직업은 '중국어 선생님'입니다. 대학생도 가르치고, 개그맨 후배들도 가르쳐요. 학생 중에는 81세 어르신도 있어요."

조혜련이 중국어를 시작한 것은 2010년 4월부터다. "(가정 생활에서)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관계를 끝내지도 못하고 이리저리도 못할 때 돌파구로 택한 것이 중국어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혜련다운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매일 3시간씩 동성으로부터 중국어를 배웠고, 1년 2개월 만에 중국어능력평가시험(新 HSK) 5급을 뚫았다. 이듬해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고, 그는 "알아보는 사람 없는" 중국 지방 도시에서 반년 간 머물면서 말을 익혔다.

지난해 초 SBS TV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흥행으로 한중 콘텐츠 시장 교류가 급증한 것은 조혜련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중국 장우위성TV 예능 '최강전단' 출연 요청을 받았어요. 원래 1회만 출연하기로 했는데 사흘 동안 대본을 달달 외운 다음 촬영에 들어갔어요. 1회에서 잘하니 매회 나오게 됐죠. 후배 이위성TV '루귀아이'에 나오는 중국 배우에게 잠깐 한국어를 가르치는 장면도 많이 알려졌고요."

조혜련은 그렇다고 일본 진출 때와는 달리 중국 시장에 '죽자자식' 뛰어드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일본에서처럼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다. 일본어는 아픔도 많이 겪고, 성숙하게도 한 언어"라는 고백에서는 일본 활동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조혜련은 대신 자신보다 더 뛰어난 자원들이 중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키워주자는 마음을 먹었다고. 그것이 중국어 교육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이유다.

"옛날에는 방송인으로서만 살아왔어요. 나는 충분히 (예능)감 '자사자' 뛰어드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일본에서처럼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다. 일본어는 아픔도 많이 겪고, 성숙하게도 한 언어"라는 고백에서는 일본 활동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美 넷플릭스에 제작비 580억 투자 받고 브래드 피트와 공동 제작

신작 '옥자' 봉준호 감독 "환상적인 기회"

세계 영화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봉준호 감독(사진)이 또 하나의 쾌거를 올렸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세계 1위 기업인 넷플릭스가 봉 감독의 신작 '옥자'에 제작비 전액인 5000만달러(약 579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넷플릭스는 가입자가 약 6900만명에 달하는 세계 1위 주문형비디오(VOD)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다. 내년 초 한국에 진출할 예정이기도 하다.

데이비드 핀처 감독, 케빈 스페이스 주연의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를 자체 제작, 시즌 전 분량을 동시에 공개하는 새로운 서비스 방식으로 드라마 유통 시장에 혁명을 일으킨 바 있다.

브래드 피트가 설립한 미국 중견 제작사 플랜B엔터테인먼트도 공동 제작사에 합류했다. 국내 제작사는 옥자SPC다. 플랜B는 '월드워즈', '리 엑스', '노에 12년' 등을 만들어냈고 '디파티드', '트리 오브 라이프' 등의 영화에도 공동제작사로 참여했다. 영화 '옥자'는 옥자라는 사연 많은 동물과 한 소녀의 우정,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이들의 모험을 그렸다.



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방송국이 날 안 썬주면 속상했죠. 그런데 방송국이 날 안 불러준다고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어요."

조혜련은 특히 '갑' 지위에 있는 분들이 '여자들이...' 어찌고 하면서 여자 예능을 회의적으로 평가할 때마다 마음이 착잡했다. 여자여도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게 언어나는 생각에 중국어 공부에 더 매달리게 됐다.

조혜련이 중국어 교육 동영상 하나하나를 '뽀뽀' 찍은 사이트에 대한 주변 반응은 좋다. 절친한 안문숙을 비롯해 강홍동, 김중국, 이수근, 김형희 등 여러 연예인이 이 사이트로 공부 중이다.

조혜련은 중국어를 좀 더 다지고 나면, 영어와 스페인어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올해로 외부 강연을 다닌 지 8년째인 조혜련은 플로모델인 한비야처럼 외국 대학에서 영어나 중국어로 강연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제가 예전에 펴낸 책 '미래일기'를 보면 제가 2070년 100살에 경희대에서 강연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서 햇볕을 받으며 세상을 뜨는 내용이 나오요. 그날까지 내 인생의 '배터리'(배터리)를 다 쓰고 죽겠어요. 하하하."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약 6900만명에 달하는 세계 1위 주문형비디오(VOD)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다. 내년 초 한국에 진출할 예정이기도 하다.

넷플릭스는 가입자가 약 6900만명에 달하는 세계 1위 주문형비디오(VOD)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다. 내년 초 한국에 진출할 예정이기도 하다.

데이비드 핀처 감독, 케빈 스페이스 주연의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를 자체 제작, 시즌 전 분량을 동시에 공개하는 새로운 서비스 방식으로 드라마 유통 시장에 혁명을 일으킨 바 있다.

브래드 피트가 설립한 미국 중견 제작사 플랜B엔터테인먼트도 공동 제작사에 합류했다. 국내 제작사는 옥자SPC다. 플랜B는 '월드워즈', '리 엑스', '노에 12년' 등을 만들어냈고 '디파티드', '트리 오브 라이프' 등의 영화에도 공동제작사로 참여했다. 영화 '옥자'는 옥자라는 사연 많은 동물과 한 소녀의 우정,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이들의 모험을 그렸다.

KBS '가요무대' 30주년 특별 무대

오늘 밤 10시 ... 애청곡 모음 100곡

KBS 1TV 음악 프로그램 '가요무대'(사진)가 30주년 특집을 16일 오후 10시부터 100분간 방송한다.

특집 '30년의 약속,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은 1985년 11월 18일 첫 방송 이후 지난 30년간 전파를 탄 2만4천여 곡 중 많은 사랑을 받은 100곡을 들려준다.

'가요무대'는 1985년 11월 4일과 11일 파일럿(시범제작) 방송된 이후 18일 공식 방송을 시작했다.

1회 출연자인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와 국내 첫 공식 걸그룹 '김시스터즈' 리더 김숙자 등이 축하 무대를 꾸민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거주 중인 김숙자는 어머니이자 1세대 여가수인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등을 열창하고 후배 가수인 미미시스터즈와 합동 무대도 선보인다. 이날 방송에서는 58년 전 이난영 목소리가 담긴 방송 실황 음원도 공개된다.



이밖에 조영남, 김연자, 현철, 주현미, 인순이, 설운도, 최유나, 문희옥, 하춘화, 김국환, 배일호, 이자연, 이혜리, 문연주, 박일남, 김상배, 신유, 금잔디, 김수희, 권성희, 현수, 김용임 등도 무대에 오른다. '가요무대'는 지난 8~9월에도 광복 70주년과 방송 30주년을 겸해 특집 3부작 '불멸의 가수, 영원의 노래'를 방송한 바 있다. /연합뉴스